

최근 금융환경 변화와 지역 금융기관인 수협 상호금융의 역할

한국수산업경제 | 승인 2026.03.13 10:00



강인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상호금융은 협동조합 사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수협 상호금융은 어업인과 어촌지역 주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상호금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시 어업인과 어촌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따라서 안정적인 예금 기반은 수산업과 어촌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계의 예금 감소 현상은 수협 상호금융 예금 기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가장 선호하는 금융자산 보유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높았고 주식(9.6%)과 개인연금(1.7%)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예금 선호 현상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월 국내은행의 수신은 50조 원 감소한 반면에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100조 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국내은행의 정기예금이 30조 원 이상 감소한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 가계의 저축 중 상당수가 예금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계의 예금 비중이 감소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수익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예금 금리는 하락하는 추세인 반면,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예금 수익률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반면

주식 수익률은 지난해 말부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가계의 저축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예금 금리가 은행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모습을 보였다. 이에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가계는 금리가 높은 기관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업권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금리 수준도 낮아지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가계의 주식 선호 현상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는 지역 기반 금융기관인 수협 상호금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호금융업권의 자금 조달 여건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상호금융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것도 이러한 자금 조달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저금리 기조와 주식 등의 금융자산 투자 확대 등으로 나타나는 예금 감소는 상호금융기관이 새롭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역할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금융환경 변화에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수협 상호금융은 어업인과 어촌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금융기관이다. 조합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수협 상호금융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금융환경이 변화함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지역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협 상호금융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자금 경쟁이나 고위험 자산 대출을 통한 자산 확대보다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인 수산업, 어촌, 어업인 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객 기반 확충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의 기반 유지를 위해 상호금융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수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수산경제